

<2010년 7월 21일 수요말씀 후 광고>

올해 하계 수련회 주제는 ‘와 보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수련회 주제를 말씀하셨을 때 선생은 좀 생소했습니다. 왜 그같이 말씀하셨는지, 모두 수련회에 참석하여 와 보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가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수련하고, 더욱 더 성령의 대 무장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신 수련을 한다니까 극기 훈련을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했던 정신들과 온전하지 못한 정신들을 하나님의 대 역사와 사연 깊은 말씀을 통해 바로잡고 결심하라 함입니다. 녹이 쓴 정신을 다시 빛이 나게 하라 함입니다. 그와 더불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대 무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모두 하나 되어라 함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자들 수고 많습니다. 모두 협조하고 하나 되어 준비하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잠언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그 시간을 몽땅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더욱 무장하고, 주님과 일체 되고 더욱 온전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기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새벽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새벽 시간을 잡아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입니다.